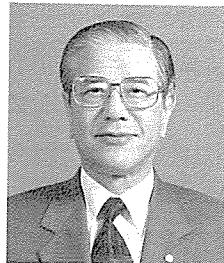


한국원자력학회

— 69년 창립 · 회원 1천7백여명



林 瑞 奎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북한의 핵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핵 또는 원자력이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원자력학회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원자력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원자력공학이란 핵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에너지, 핵반응 생성물질, 방사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원자력발전소, 핵융합, 가 속기 공학, 방사선을 이용한 의학, 농학, 공학적 이용, 반도체 산업에의 응용 등 원자력공학의 연구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원자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원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에서부터 첨단의 응용분야에 이르기까지 영역 또한 광범위한 학문이다.

〈연혁〉

원자력학회의 창립은 다른 학회에 비해 늦은 편이다. 원자력이라는 학 문의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좀 늦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젊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독자적인 학회 의 필요성이 기존 학회의 선배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 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지나고, 원자력 발전소의 도입이 확정되자 새로운 학 회의 창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1969년 3월 8일 오후 2시에 한국 전력주식회사(현 한국전력공사) 강당 에서 120여명이 참가하여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초대회장 최형섭박사

모든 과학기술분야를 집대성한 학 문으로서 과학 한국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창립된 원자력학회는 당시 KIST 소장이었던 최형섭 박사를 초 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상수 당시 원자력연구소장과 김종주 당시 한전 부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필자를 비롯하여 8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하여 명실상부한 학회로서의 거 보를 내딛었다.

초창기의 학회는 70년대에 KIST소 장과 과기처장관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이끌었던 최형섭 박사가 1대부터 5대까지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학회지를 발간했고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학회로서의 기반 을 다졌다. 그후 현경호, 안세희, 차 종희, 이병희, 한필순, 이창건, 윤용 구 박사 등이 회장직을 역임하고 1993년 이후 필자가 회장직을 맡아 학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창립당시 218명의 회원으로 출발 한 학회는 '94년 9월 현재 1,705명 의 회원(정회원 1,070명, 학생회원

139명, 평생회원 467명, 특별회원 29개사)이 가입하여 길지 않은 기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연 예산 1억3천만원

93년도 학회 예산은 1억3천3백만 원으로 수입은 회원들이 내는 일반 회비와 학회에 가입된 단체들이 내는 특별회비, 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93년의 경우에는 특별회비가 약 7천만원, 사업수익이 약 2천5백만원 이었다.

학회는 이사회와 평의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2년을 임기로 하는 회장과 3명의 부회장, 2명의 감사, 그리고 총무, 사업, 재무, 편집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는 별도로 편집위원회가 있어 원자력학회지의 편집을 맡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원 교수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매년2회 학술발표회

〈학술회의 및 학회지 발간〉

학회는 1년 두 편 봄, 가을에 걸쳐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갖는다. 봄에는 대전, 광주, 포항, 고리, 제주 등 지방에서 개최하며,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봄에 포항공과대학에서 개최된 춘계 학술발표회에서는 14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약 450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학술발표회에서의 논문발표 및 토론은 회원간의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게 된 원동력 역할을 하였다.

학회지는 1969년의 9월에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까지 101권이 발간되었다. 초창기부터 1년에 4차례씩을 발간해온 학회지는 논문을 제출하고 수록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5명에 학술상 시상

〈국제 학술회의 및 학술상〉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1년에 한번씩 관련분야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창립 다음해인 1970년 7월에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1971년), 에너지 개발 및 환경관련에 관한 심포지엄(1973년),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에 관한 심포지엄(1987년) 등 다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전산단층 촬영기술에 관한 국제 워크숍(1978년), 원자로 안전 및 열수력학에 관한 워크숍(1985년), 1990년대 원자로 설계에 관한 워크숍(1986년) 등 다수의 국제 워크숍도 꾸준히 개최하여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회원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1986년부터는 원자력산업회의와 공동으로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학회협동연차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현재 원자력 분야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중 가장 권위 있는 학술회의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함께 학회는 그간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하나는 1988년 11월에 개최된 제 3차 원전 열수력학 및 운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로 미국의 원자력학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회의는 그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1991년 10월에 개최된 폐기물관리 국제학술회의로 이 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학회는 국제적인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학회는 이 두 회의를 개최한 기념으로 그해부터 원자력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적인 업적을 이루고 학회 발전에도 공헌을 한 학자를 선정하여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원자로부문과 폐기물관리 및 핵연료주기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고 있는 이 학술상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장순홍교수가 첫 수상을 한 이래 지금 까지 김창효, 전문현, 조남진, 박현희, 노성기 박사 등에게 수여되었다. 아직까지 학술상의 연혁이 짧아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점차 그 권위를 더 해가리라 생각한다.

바른 원자력교육 지향

〈인접학문과의 연계성〉

원자력공학의 특징 중 하나가 거의

학/회/순/례

모든 과학기술을 망라한 종합과학기술로서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토목, 기계, 전기, 화학, 재료공학 등과는 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기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분야와의 원활한 학술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타 학회와의 학술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타 학회와의 보다 활발한 학술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다.

〈학회 사업의 발전〉

학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원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활발한 학술교류를 조성하는 것이지만 원자력 학회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는 특성을 살려 국가 원자력 기술발전에 기초가 되는 연구사업도 수행해 왔다.

1977년에 원자력 발전부품 기술기준 제정 연구 용역사업을 시작한 이래 1993년까지는 주로 조사연구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업만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3년 들어 향후 국가 원자력 정책의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들간에 이해관계가 얹어 어려운 양상을 보이자 중립적이면서도 권위있는 학회가 과학기술처로부터 「장기 원자력 정책방향 설정연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회장이었던 한국과학기술원의 윤용구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고 약 100여명의 회원들이 연구에 참가한 이 용역은 2030년까지의 국가 원자력 정책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0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10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10차례의 연구토론회, 4차례의 자문위원회, 3차례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수행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장기 원자력정책은 1994년 7월에 국가 원자력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사업의 수행은 학회가 단순히 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있는 단체로 위상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회의 미래상〉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국제사회의 화해 무드 조성,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반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의 인식제고에 앞장〉

따라서 학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원자력에 대한 저변확대를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관련기관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 단체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21세기에 원자력선진국으로 집입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계속할 것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선 원자력 학회지가 ISI의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록되는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ST

◆조직기구표

